

눈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두번 즐기는 오일장의 맛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오는 날이 장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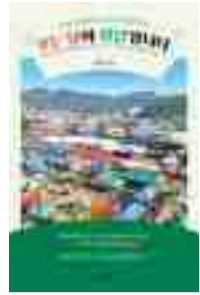
김진영 지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다. 원래 좋은 것은 썩어도 어느 정도 본디의 맛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에는 갯김치, 돌계장, 서대회, 장어탕 등이 있지만 준치도 그 가운데 하나다. “양태 몸통에서 가시를 피해서 살을 발라내 먹는 것이 조금 귀찮아도 참 맛있는” 생선이 바로 준치다.

겨울 여수에서 맛보는 준치의 맛은 그만이 아니다. 과일 식초와 막걸리를 섞어 무친 회 무침 맛은 별미 중의 별미다. 새콤하면서도 달콤지근한, 코끝을 톡 쏘는 감각은 오묘한 느낌을 선사한다.

여수 오일장에는 어물전이 없다고 한다. 오일장 옆으로 수산시장이 있어서 한두 개 좌판이 있을 뿐이다. 이곳에서 교통시장, 수산시장, 중앙선어시장을 지나다보면 여수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전국 오일장에서 찾은 맛을 소개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먹거리에 진심인 26년 차 식품 MD 김진영이 펴낸 ‘오는 날이 장날입니다’가 그것. 그동안 저자는 ‘폼나게 먹자’, ‘어찌다 어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제철 식재



료 발굴에 앞장서왔다. 이번 책은 그가 사계절을 찾아낸 전국 오일장의 맛을 담고 있다.

저자는 지난 3년 간 부지런히 시장을 돌아다녔다. 다양한 지역색 만큼이나 시장의 분위기 또한 달랐다. 그중에서 “손님과 상인 간의 넘치는 ‘정’을 느꼈던 시장이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흥정’이다. 흔히 주고받는 이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리듬이 흥정이 있어야 시장은 활기가 돌고 풍요롭다.

순천에서는 다양한 밭도둑을 만났다. 2, 7일은 아랫장이 서는 날인데, 상설시장인 중앙시장이나 순천역 앞 장이 썰렁할 정도로 사람이 몰린다.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망둥어와 생선인 ‘개소갱’은 외모와 달리 구수한 매력이었다. 저자의 눈에 개소갱은 영화 ‘해일리안’에 나오는 괴생물체와 같은 외형으로 보인다. 이곳 사람들은 ‘대갱이’라고 부른다.

“나무 망치로 딱딱한 대갱이를 두들기면 껍질은 가루가 되고 허연 속살이 드러난다. 허열계 된 개갱이의 포를 뜯어 매콤하게 무쳐서 먹는다. 그 맛은 황태나 북어 채를 무친 것보다 깊고 긴 여운의 구수함이 있다. 여기에 전라도의 손맛이 더해지는 순간, 밭도둑계의 끝판왕이 된다.”

완도 오일장은 5와 0이 들어가는 날에 선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낫선 이름의 ‘너푸’라는 해초다. “된장국을 끓이면 너푸 만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맛이 있다. 너푸, 넓테라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넓떡이다. 현지 아니면 맛볼 수 없어 완도나 진도 등에서는 인기가 있다.

완도의 감태는 요즘 들어 부쩍 찾는 이들이 늘었다. 현지 사람들은 김치와 함께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뽕고추,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잘 숙성한 멸치액젓에 고춧가루를 개어서 버무리면 완성된다”고 한다. 해초 향이 더해진 새콤함은 밥을 연신 부르는 특별한 맛이다.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고장인 하동은 오른쪽은 여수와 광양, 아래와 왼쪽은 남해와 사천이 자리한다. 동네 사람들이 애용하는 화개 오일장은 바다에서 온 것들로 장을 채운다. 삼진강 재첩을 비롯해 바다의 바지락, 대합, 우럭조개가 행인을 손짓한다. 이곳에선 남해의 우럭조개를 많이 받는다. 살을 발라내고 수관 부분을 손질해 미역국과 속회 무침을 만들면 최고의 맛이다.

또한 완주의 육회비빔밥, 겨울 통영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전갱이, 포항에서 맛보는 장치회도 소개돼 있다. 아울러 진정한 여름 맛이 깃든 양구, 기찻길 따라 즐기는 춘천의 시장길, 겨울엔 대개 여름엔 복숭아로 유명한 영덕 등 책 갈피마다 펼쳐진 오일장의 맛은 오감을 즐겁게 한다.

〈상상출판·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천 아랫장에서는 망둥어와 생선인 대갱이 요리, 시원한 바지락탕, 새콤한 회무침 국수 등 다양한 밭도둑을 만날 수 있다.



은밀한 결정

오가와 요코 지음, 김은모 옮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28개국에서 출간됐으며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 최종 후보, 타임 선정 올해의 책이 되어야 할 책으로 선정됐던 ‘은밀한 결정’. 일본 최고 권위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던 오가와 요코 작가의 소설이다. 오가와 요코는 현재 무라카미 하루키, 오에 겐자부로 등과 함께 전세계에 가장 활발히 번역 출간이 이루어지는 일본 작가로 꼽힌다.



소설은 알 수 없는 힘으로 인해 사물의 존재와 기억이 사라져 가는 섬을 모티브로 전개된다. 주기적으로 소멸이 일어나면 섬사람들은 그에 관련된 모든 기억을 잃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밀경찰에 끌려가 사라진다. 소설가인 나의 어머니 또한 기억을 잃지 않은 사람 중 한명이었고, 이미 소멸한 물건을 지하 서랍장에 숨겨두고서 나에게만 설명해준다. 얼마 후 어머니는 비밀경찰에 불려가 시신으로 돌아온다. 들새 연구가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지자 나는 가정부 할머니의 남편인 할아버지와 가족처럼 지낸다.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나는 편집자인 R씨 역시 소멸한 것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품은 SF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간공간이 명확하지 않은 배경과 의식주 묘사, 인물 간 관계 등은 지난 세기의 목가적인 시골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저편에는 오가와 요코를 작가의 길로 이끌어준 십대 시절의 애독서 ‘안네의 일기’가 있다.

한편 이 소설은 지난 2018년 연극으로 각색돼 무대에 올려졌으며 드라마 ‘핸드메이즈 테일’에 참여했던 리드 모라노가 감독을 맡아 아마존 스튜디오에서 영화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동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령왕, 신화에서 역사로

정재윤 지음

삼천 궁녀, 낙화암, 의자왕, 계백... 백제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백제는 이보다 더 많은 역사와 의미를 간직한 나라다. 근초고왕, 성왕, 아신왕과 왕인도 백제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다.



백제사를 30년 넘게 천착해온 정재윤 공주대학교 교수. 그는 백제학회 회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사료를 보니 백제가 보인다’ 등을 펴낸 백제 전문가다. 이번에 정 교수가 펴낸 ‘무령왕, 신화에서 역사로’는 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은 무령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풀이한 ‘백제 제대로 보기’ 결과물이다.

저자는 성근 사료를 날줄로 합리적 추론을 씨줄로 삼아 의문에 싸인 혈통통, 이국에서 태어난 섬 소년왕이 왕위에 오른 여정 등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무령왕은 고구려와의 한성 전투에서 패한 백제를 중흥시킨 군주다. 실제 “무령왕은 521년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수차례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선언”할 만큼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

왕권을 쥔 무령왕은 위민정책을 시행한다. 재위 6년(506) 춘궁기에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거나 재위 9년(509)에 임나 지역 유민의 호적을 복구하기도 한다. 이후에는 섬진강 유역을 확보해 일본과 중국을 향하는 물길을 확보하는 등 강병(強兵)을 지향한다.

저자는 기존의 탄생설화에만 초점을 맞추던 연구에서 벗어나 무령왕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고고학적 성과와 들여다본다. 아울러 무령왕이 왕으로 즉위하게 된 과정과 민심을 얻는 배경 등을 풀어낸다.

〈푸른역사·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 칸타타

마쓰다 아유코 지음, 안혜은 옮김

클래식 음악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다. 광고나 영화, 드라마의 OST로, 카페나 실내 공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거나, 뮤지컬이나 소규모의 콘서트 등을 통해서도. 또 유명 연주자나 교향악단의 연주회, 오페라도 과거에 비해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출간된 ‘클래식 칸타타’는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 클래식을 조금 알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유용한 책이다.

저자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의 저자이자 나가오카 시 예술문화진흥재단과 도쿄 필하모닉에서 기획과 홍보를 담당했던 마쓰다 아유코. 그는 수많은 명곡들 중에서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친숙한 곡들, 당대에 한 획을 그은 작곡가의 대표곡들을 선정해 클래식 음악사의 흐름에 맞춰 에피소드들과 함께 엮었다.

책은 “음악 후진국” 독일의 도악-바로크”, ‘산업혁명기 악기와 청중에 가져온 변화-고전파’, ‘예술과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다양성-낭만파 I’, ‘근대화의 물결로 더욱 다이나믹해지다-낭만파 II’, ‘세계가 열광하는 오페라’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바흐를 시작으로 헨델, 멘델스존, 베를리오즈, 말러, 라흐마니노프, 라벨, 푸치니 등 유명 작곡가들의 인간적인 고뇌, 사랑과 불안, 고독과 행복 등이 담긴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명곡이 탄생한 배경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00여 컷의 사진 그리고 명곡이 삽입된 영화와 노래, 저자의 경험과 감상평 등도 담겼다.

〈울렛북스·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坪)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8坪)
DAP-0420AWJG

소버지 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59 공기청정기 (16坪)
DAP-2216NAWH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